

새 대통령에 바란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25일 취임하는 제18대 이명박 대통령에게 실용과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서도 낙후된 지역과 그늘진 계층을 살피는 통합의 지혜를 당부했다.

“낙후지역·그늘진 계층 살피는 지혜 퍼길”

지방분권 완성 대통령 됐으면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지방이 고투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호남 역점사업 특단의 배려를



김종철 전남도의회 의장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출발을 200만 호남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 호남 사람들은 새 정부가 태동하면 호남이 소외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신뢰받는 국가 일구어 가길



강정채 전남대 총장

모든 사람들이 큰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2008년이다. 새 정부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큰 틀 아래 투명한 사회를 실현해 달라.

광주·전남 발전대책 마련을



이승기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산업 측면에서 볼 때 광주·전남지역은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확실한 산업발전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주길 바란다.

생활체육 발전 정책펴야



남무석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우리나라는 한정된 자원속에서도 국민의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올림픽, 월드컵 등을 성공 개최했다. 국민의 관심사는 이제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활동과 레포츠 참여로 바뀌어가고 있다.

인재 골고루 등용 국민화합을



안희옥 광주YWCA 사무총장

국민 화합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재를 골고루 등용했으면 좋겠다.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여성·장애인 복지 적극 지원을



임선숙 변호사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는 'CEO의 옷'을 벗었으면 한다. 기업 경영에선 수익성과 효율성이 지배하지만, 국가경영에선 공동체의 통합과 미래를 위한 투자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시장친화적 정책 강력 추진



김규룡 건설협 전남도회장

국가 및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으면 한다. 참여정부에서 계획된 지역 현안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상생과 균형의 '통합사회' 지향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실용주의에 입각한 경제살리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잠재력은 풍부함에도 당장의 수요 부족으로 소외된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국민통합을 저해하지 않도록,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통합·조정기능을 주문하고 싶다.

열악한 중기 경영환경 개선



강영애 중기중앙회 지역본부장

새 정부는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자금난에서부터 판매난, 인력난 등에 이르기까지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줘야 중소기업이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수도 지원 아끼지 말아야



최규철 광주예총회장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문화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도시다. 새 정부에서도 광주 지역민들의 염원인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문제 본질적 해결책 제시를



최구형 조전대 총학생회장

새 정부가 교육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등록금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고, 대학 졸업자가 실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됐으면 한다.

5만여명 뜨거운 박수 받으며 연단 올라

27분 취임사 통해 향후 5년 구상 설명

미리보는 대통령 취임식

25일 오전 10시53분. 현충원 참배를 마친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태운 대통령 전용승용차가 국회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이 대통령 부부는 내·외빈과 일반 국민 등 5만여 명의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으며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T자형 연단까지 200m 가량을 걸어들어 온다.

이 대통령 부부가 5분여를 걸어 T자형 연단에 도착하면 청사초문을 든 남녀 어린이가 대통령 부부를 맞이해 연단 위 좌석으로 인도한다. 역사적인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본 행사가 개행되는 것이다.

작식이 끝나면 관례대로 지금까지 취임식 사회를 맡아온 행정자치부 장관이 개식 선언을 하고 곧이어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시작됨을 알리는 광파르가 장내에 울려 퍼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의 순서가 이어진다.

국민의례가 끝나면 국무총리의 식사가 뒤따르고 참석자 모두 기립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27분 동안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한 향후 5년 구상을 국민들에게 펼쳐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단상에 오른 내·외빈 인사들과 악수를 나눈 뒤 연단으로 내려와 이임하는 대통령을 환송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용차에 탑승해 고향인 봉하마을로 출발하면 이 대통령은 입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통로를 통해 국회 정문까지 행진한다.

전·현직 대통령이 바통 터치하는 순간이다. 이때 참석자들은 박범훈 취임준비위원장이 작곡한 '시화연풍 아리랑'을 합창하고 미리 받은 빨강·파랑·노랑색 머플러를 흔들며 아름다운 화합의 물결을 이룬다.

행사시작 1시간7분만인 낮 12시 사 회자는 폐식을 선언한다.

이명박 대통령, 미·일·중·러와 취임식 외교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식을 계기로 각국의 축하사절단과 만나 활발한 외교행보를 펼친다.

취임식에는 각국에서 200여명의 외빈들이 참석했으며, 정상으로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남바린 옹호바야르 몽골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등이 방한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탕 자쉬안(唐家璇) 중국 국무위원, 빅토르 주프코프 러시아 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도 정부를 대표해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축하사절단은 대부분 취임식을 하루 앞둔 24일 입국했다. 후쿠다 일본 총리와 주프코프 러시아 총리는 이날 오후 각각 특별기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며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밤 늦게 특별기를 타고 한국에 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청와대에 서 후쿠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주요인사들과는 개별적으로 만나 외교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취임 첫 정상외교는 후쿠다 총리와 의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주제로 서클외교 재개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회동에서는 한·미 FTA 비준 문제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지연으로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는 북핵 6자회담 진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4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한 협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관한 대략적인 의견도 교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축 이명박 대통령 취임 2008년 2월 25일 남양건설(주)